

에베소 1
Tape #C2600
By Chuck Smith

Let's turn in our Bibles to Ephesians.
자, 에베소서를 펴세요.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1:1)

Now, if you were writing this epistle, take out the name Paul, and insert your name and then, whatever it is that you are: Jim, a service station attendant by the will of God. John, a foundry worker by the will of God. You see, not all are called to be apostles. Not all are called to be pastors, and not all are called to be preachers. Also, it is a mistake to try to be something that God hasn't called you to be, something that God hasn't equipped you for.

여러분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 바울이란 이름을 지우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의 이름을 삽입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유소 점원이 된 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물공장의 노동자인 존. 보세요. 모두가 다 사도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시다. 모두가 다 목사나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것 즉 준비시키지 않으신것이 되려고 노력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I really do not like the phrase, "He is following the highest calling of God; he's gone into the ministry." The ministry is not the highest calling of God. "Oh, he's following the highest calling of God; he's a missionary." That is not the highest calling of God.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길로 간다.” 는 표현을 나는 아주 싫어합니다. 목회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가 되었다” 라고 할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Whatever God has called you to be and equipped you to be is God's highest calling for your life. And you don't need to feel like a second-rate heavenly citizen just because you have a job as a service station attendant, or you are a secretary, or if you are blessed of God with the privilege of being a housewife.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도록 하시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주유소 점원이 되었거나 비서가 되었거나 또는 가정 주부가 되는 특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늘 나라의 이등 국민이나 되는 것 처럼 느껴서는 안 됩니다.

Whatever it is that God has called you to be is the highest calling of God for your life, and we should be enjoying rather than feeling guilty. "Oh my, I'm not in the ministry. I should be in the ministry. I have to work at this job and all." Hey, be grateful that God has spared you a lot of the pain and deprivation and grief that ministers often have to go through.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든지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며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오, 나는 꼭 목회를 해야 하는데 목사가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해야돼." 보세요, 목사가 겪는 많은 고통과 손실과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나 하세요.

So Paul is just declaring his own calling. What I am, I am by the will of God, and that is what is important. For many years I had a difficult problem, because I sought to be "Chuck, the evangelist by the will of God," but I wasn't.

바울은 그의 부르심을 선언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도자 된 척" 이 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God never did call me to be an evangelist, and my endeavor to be an evangelist was totally futile, frustrating, defeating. It wasn't until I decided to kick the mold of the denomination that I was in, which held up evangelist as the highest calling, and just be what God had equipped me to be and ordained me to be: Chuck, a pastor-teacher by the will of God, that I began to experience a real fulfillment in my ministry.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지 않았고, 전도자가 되려던 나의 노력은 완전히 허사 였고, 좌절과 패배감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소속되었던 교단은 전도자를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으로 여겼고 내가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 까지는 내 자신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와 교사된 척 스미스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목회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Up until then, the ministry was hard. It was a grind. It was a push. I was trying to be something God didn't make me. And you know, that's 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try to be something that God didn't make you.

그 때까지의 나의 목회 생활은 힘들었고 짜증스러웠습니다. 마지 못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신것을 되어 보려고 애쓰는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드느것입니다.

The Bible says,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Know what you are by the will of God. Because if you are what you are by the will of God, then you have pleasure in what you are and what you are doing, and when your work becomes your pleasure, then you are a happy person.

성경은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라" 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현재의 나 된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것이라면 현재의 상태로 기뻐하고 내가 하는일에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일이 기쁨이 될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것입니다.

I always encourage young people to find something they really enjoy doing and learn how to make a living from it. Because when your work is your pleasure, then you are a happy person.

나는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는일이 즐거워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 입니다.

If your work is a grind, then you are going to be a miserable person, because you've got to figure that probably a third of your life is going to be spent on the job, and if it is just a grind and a push, and you think, "Oh, I have to go to work today. I'll be glad when five o'clock comes." Man, you're grinding at it constantly.

우리의 하는일이 힘이 들고 단조로운것이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것입니다. 거의 1/3의 인생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한다면, "오, 오늘 일하러 가야하네. 빨리5시가 되었으면 좋겠네." 딱한 사람아, 끊임 없이 불만에 차 있구먼.

Paul, an apostle by the will of God, to the saints which are at Ephesus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1:1)

You may say, "Well, that lets me out." The only part that lets you out is the "of Ephesus." It is a tragedy, really, that the church decided to "saint" certain people for special honors. We make him a saint.

The church never made anybody a saint. The Lord creates the saints, not the church. And as far as the Lord is concerned, you are all saints if you love Him and follow Him.

“에베소에 있는 ○○○” 를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바꾸면 그 편지는 우리 각자에게 쓴것이 됩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여 “성인” 으로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를 성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도 성도로 만들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도를 만드신 것이지 교회가 성도를 만든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It's not a special category for super Christians. It's a common title for those who love the Lord and believe in Him. "Saint Charles," I will accept the title. But if that bothers you, Paul goes ahead and includes you in the rest of it there.

그것은 특별한 부류의 그리스찬들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나는 “성도 찰리” 라는 명칭을 받아드립니다. 바울이 성도라고 부를때 우리 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nd to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1:1):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1:1)

So this letter is to you.

In this first verse he introduces, really, the sort of the underlying tone of the whole epistle, and it is in the words “in Christ Jesus.” So as you go through this epistle, it will be helpful if you will take your pen and you will underline all of the things that you have that God has done for you in Christ, through Christ.

여러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편지 전체에 깔려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어나갈때 펜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d you will find the phrases, “in Him,” “by whom,” “in whom,” “through whom,” “through Him,” and all of these things that you are and have through and in Jesus Christ.

“그의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고 이 모든것들이 우리의 현재 상태와 거쳐온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And you find this reoccurring throughout the entire epistle. And so this almost becomes the key word that will unlock the epistle as he tells you all that you are, all that God has done for you, all that God is going to do for you, all that God wants to do for you, in Christ Jesus. So do underline as you go through and it will help it to be drawn back to your memory.

서신 전체에 걸쳐서 이 구절들이 자주 나오는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바울 서신의 관건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갈때 밑줄을 그으면 당신이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Grace b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2)

Grace and peace, coupled together, over and over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Always in this order, for you cannot know the peace of God until you first experience the grace of God.

은혜와 평강은 함께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평강을 알 수 없습니다.

For years I went in my Christian experience without really knowing the peace of God in my heart. Because I was under a work relationship with God, trying so hard, and I never had peace.

나는 여러해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못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노동자의 관계였으므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내게 평강은 없었습니다.

I really never had assurance of my salvation until I discovered the grace of God. And in the discovery of the grace of God, I then had assurance of my salvation, and I experienced the peace of God, and it was glorious.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때까지는 구원의 확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것이었습니다.

And that I think, probably, is one of the reasons why I emphasize the grace of God so much in my ministry, is that brought such a depth of peace and blessing to my own life to experience it after serving the Lord for years.

내가 여러해동안 주님을 섬긴 후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깊이를 체험하기에 이르렀던것이 나의 목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From the Lord Jesus Christ.” Now a lot of people think that is first, middle, and last name. Not so. His name is Jesus. It is the Greek for the Hebrew Yeshua.

The Hebrew name is Yeshua, is a name which means, or is a contraction of “Jehovah is salvation.” One of the compound names of Jehovah, Yeshua. The Greek name is Jesus.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가 첫이름과 중간 이름과 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헬라어 이름이며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Yeshua) 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예슈아 이며 “여호아는 구원이다” 라는 뜻을 가진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복합으로 된 이름 중의 하나이며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And they were instructed to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The Lord is salvation, call Him Yeshua,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것이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구원이시니 그를 예슈아라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것임이라.

The word *Christ* is the Hebrew word *Messiah*, and it tells His mission. He is God's promised Savior, the anointed one, the Messiah. And Lord is His title.

Now, our problem is that we use it as His name, rather than His title. And thus, we use it loosely and oftentimes in vain. Many people take the name of the Lord in vain, because they use the term Lord as a name, rather than a title. It signifies my relationship with Him. If He is Lord, then I am the doulos, I am the slave, I am the bond slave. And it is important that I establish this relationship with Him as Lord and servant.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며 그의 임무를 말해줍니다. 그는 약속된 하나님의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의 직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의 직위를 그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를 그의 직위로 사용하지 않고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 줍니다. 만일 그가 주님이시라면 나는 들로스 즉 종입니다. 나는 스스로 택한 종입니다. 내가 그분과 주종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Jesus said,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yet you don't do the things I command you?" That is inconsistency. And yet, how inconsistent people are calling him Lord, and yet not obeying His commands. And so it is important that we realize that this is a title, not a name. And that we come into that relationship with Him as Lord. "For if thou shalt confess with thy mouth that Jesus Christ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Romans 10:9-10).

예수께서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시키는 일은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것은 직위이지 이름이 아니며 우리가 그 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관계를 가지게 된것을 깨닫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Confessing what? Jesus is Lord. But it can't be an empty confession, because many people come in that day saying, "Lord, Lord open to us." And He will say, "I never knew you. What do you mean, 'Lord, Lord'? You never served Me." "Oh, but I called You Lord all of my life." "Yes, but you never served Me." Title, relationship, don't take it lightly or loosely.

무엇을 시인 한단 말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고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라고 말하면 주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여, 주여’ 라는 뜻이 무엇이뇨? 네가 결코 나를 섬기지 아니 하였느니라” 고 하실것입니다. “오, 그러나 내 평생 당신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다만 너는 나를 한번도 섬기지 않았어.” 이 직위나 관계를 가볍게 영성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Now Paul gets immediately into the issues that he wants to talk to them about.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1:3)

바울은 즉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1:3)

And there you have it: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in Christ (1:3):

그리스도 안에서 (1:3)

Notice, first of all, that he is thanking God for the spiritual blessings. There is an awful lot, in fact, too much talk today about material blessings. And those that are going around advocating how that every saint of God should experience all kinds of material blessings and the testimonies are of the material blessings.

제일 먼저 바울은 영적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있는것에 주목 하십시오. 오늘날 지나칠 정도로 물질 축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가지 물질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말하면서 두루 다니고 간증들은 물질의 축복에 관련된것들입니다.

Sometimes I don't know if I am in an Amway meeting or a church service as people testify of the material blessings. Paul is thanking God for the spiritual blessings. And when you hear a person giving thanks to God, note what he is thanking God for, because it can surely indicate the person's place spiritually.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 간증할 때 내가 혹시 AMWAY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If a person is really walking after the Spirit and is interested in things of the Spirit, he is going to be thanking God for the spiritual blessings. But if a person is a materialist and is very interested in the material things, he is going to be talking always about the material blessings. "But beware of those," the Bible

says, "who declared that godliness is a way to material prosperity, from such turn away." He is thanking God for the spiritual blessings.

만일 참으로 성령을 좇아 행하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질주의자 라면 물질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을것이고 항상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이 물질적인 번영으로 가는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 서라” 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바울은 영적 축복을 위해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And he is going to spend the first three chapters of Ephesians sort of enumerating these spiritual blessings that we have in and through Jesus Christ. He is going to tell you for three chapters now what God has done for you.

바울은 에베소 첫 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받게된 우리의 이 영적 축복들을 하나씩 열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세 장에 걸쳐 말하려고 합니다.

I think that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in the church today arises from the fact that in the church we are always hearing what we ought to be doing for God. I grew up on that kind of a diet. Every service that I attended, it seems, I was being told what I ought to be doing for God, and I wasn't doing what I ought to be doing for God.

나는 오늘 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항상 듣는데서 일어납니다. 나는 그런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내가 참석했던 예배때 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And I was very miserable and I felt convicted constantly, because I was failing. I ought to be doing more for God, I ought to be doing this for God, and the other thing for God, all I ought to be doing for God.

나는 줄곧 실패하는 죄책감으로 비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해야했고 저것도 해야 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마땅히 해야 되었습니다.

There were many things I wanted to do, but I just was weak. I ought to be praying more, and so I go down on Sunday night, and I'd pray, "God, I am going to pray more this week." But I didn't. Then I would feel guilty, and next Sunday night I would go back and repent for not praying more last week, and, "This next week I will do it, Lord."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싶었으나 오직 나의 육신은 약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내려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주에는 더 많이 기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나선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 지난주에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기 위해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다음주에는 꼭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But every Sunday night there was repentance for my failures this last week. I ought to be reading the Bible more, “God, I am going to read the Bible more,” but I didn't. I wanted to.

그러나 매 일요일 저녁이면 지난 주의 행하지 못한것들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더 읽어야 지, “하나님,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I ought to be witnessing more. But I didn't.” Always feeling guilty because I was failing to be or to do all that I ought to be doing for God. Half of the problem was that I didn't know how. For years in my ministry I followed the pattern that I knew by growing up. I was telling the people constantly what they ought to be doing for God.

나는 더 많이 증거해야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한것과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의 절반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의 목회 생활에서 내가 자랄때 배웠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First many years of my ministry I was always half mad with the people. Because I wanted to be an evangelist, because that is what the denomination recognized. I wanted to see souls saved, because the first thing I had to report on my report every month was how many people were saved this month.

내 목회 생활의 처음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반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교단에서도 전도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혼들이 구원 받는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매월 제출하는 보고서의 첫번째 항목이 이달에 구원 받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Terrible to put zeros in there. The hierarchy, the bishops will never recognize you unless you have converts. And so I had prepared some of the most fantastic evangelistic sermons. I mean, they could convince the hardest sinner that he ought to commit his life to Jesus Christ.

하나도 없다고 쓰기가 두려웠습니다. 정치체제상 가장 높은 감독은 교회에서 개신자가 없으면 인정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만 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전도용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And I would go to church all supercharged with this powerful dynamic message, I mean no sinner can reject this message. And I would get to church and I would look around, and there wouldn't be a sinner in the house.

I knew everybody by first name. What are you going to do? No sinners to preach this powerful message to. Can't change my message now. 나는 죄인이 이 메시지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기발한 설교를 준비하고 가서 교회 주위를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모두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얼 할려고 하는거야? 이 기발한 설교를 들을 만한 죄인이 없잖아! 지금 와서 설교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else to preach. I will have to preach this powerful salvation message to all of these saints. That is frustrating. And I let my frustration be known by laying it on the saints. I put a little addendums to my message, of how they had so failed God, that if they were doing what they should be doing this church would be full of people tonight.

그것 밖에는 설교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해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성도들에게 하여서 내 좌절감을 그들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었다면 오늘 밤 이 교회가 가득 차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가를 내 메시지에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Sinners to hear the gospel message. "You should have your neighbors with you this evening." And I would really lay it on the poor saints, and their heads would go down, down, down.

I was laying the lash across their backs, beating them, total failures in their Christian walk. I have got to preach this powerful salvation to saints, that is not fair.

죄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웃들을 함께 데려왔어야 합니다." 라고 형편없는 성도들이라고 하자 그들의 머리는 점점 아래로 숙여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신앙이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등에 마구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해야 한다는것은 불공평합니다.

So I developed a congregation of frustrated, guilt-ridden saints. And I would make my appeal to reconsecrate your life to Jesus, at least I could get people forward.

Oh, God bless. You notice I dedicated my last book to those people way back when. Those blessed saints that endured my whippings every Sunday, and came back for more--that is the surprising thing.

그래서 나는 좌절하고 죄의 가책으로 가득찬 성도들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재 헌신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하면 적어도 그들이 앞으로 나올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신대로 언젠가 나의 지난번에 낸 책을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매 일요일 나의 채찍을 참고 견디어 온 축복 받은 성도들이 더 많이 채찍을 맞으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As their head would go down and they'd feel guilty, "Yes, I have failed God. Oh, I am so sorry, Lord. I should be doing more for You. I know I should. But, God, I don't know how. This dumb pastor isn't teaching me anything besides salvation." It was really my fault. I never took them beyond salvation. I never brought them into the walk in the Spirit, in the life of the Spirit, into growth and maturity in the Word.

죄책감으로 머리가 더욱더 수그러지면서,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요. 해야 하는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멍청한 목사는 구원 외에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넘어서는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성령 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지 않았고 또 성령의 삶을 살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One day God changed my ministry. I became a pastor-teacher, got rid of my evangelistic sermons and started to feed His sheep, to make them strong, and there was a dramatic change in my own ministry.

어느날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를 바꾸셨습니다. 나는 목사와 교사가 되었으며 전도 설교는 없애 버리고, 양을 먹이고, 튼튼하게 만들기 시작했더니 내 목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As I quit beating the sheep and started feeding the sheep, the sheep started getting strong. They started getting healthy, and you know what happened? As they got strong and healthy, they started to reproduce. They now have something to share with their neighbors.

양을 때리는 것을 중단하고 양을 먹이기 시작했더니 그들은 튼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재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웃과 나눌수 있는것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Christ became their life. Witnessing wasn't something they were doing anymore but it was something that they were. Their lives changed by the Word of God and the power of the Spirit.

예수가 그들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하던 방법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보여줌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They became witnesses, and the effect of it was that their witness began to go out throughout the neighborhood, and their neighbors began to come and be saved. And the church began to be blessed and grow.

그들은 증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의 증거가 온 이웃에 전해졌으며 이웃 사람들이 와서 구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축복 받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The church has been emphasizing much too long what you ought to be doing for God, the Bible doesn't emphasize that.

The Bible emphasizes what God has done for you. "Thanks be unto God who has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and he takes three chapters now to tell you all that God has done for you.

성경에서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말합니다.

And it is not until he has told you for three chapters what God has done for you that he turns around then and says, "Now walk worthy of this glorious calling." He doesn't tell you what you ought to be doing for God until, first of all, establishing for you what God has done for you. And that is the proper order, because you can't be what you ought to be without that which God has already done for us. In other words, God's work has to be first in my life.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세 장에 걸쳐 말한 다음, 돌아서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가 행하기에 합당하다" 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확고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없이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첫째라야 합니다.

And in the New Testament, the order is always that way. You will never find the reversed order. Before what you should be doing for God is always what God has done for you.

신약성경 에서는 항상 순서가 그러합니다. 뒤바뀌는 순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것이 항상 내가 해야할일 보다 앞서야합니다.

“Thank God,” Peter said, "that we have been born again in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an inheritance incorruptible, undefiled, that fades not away, that is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kept by the power of God" (I Peter 1:3-4).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3-4)

All of this is what God has done for you. Thanks be unto God, we have been born again to this living hope because Jesus rose from the dead. We have an inheritance, incorruptible, undefiled, fades not away. That is all what God has done for you.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kept by the power of God, it is God that is keeping you.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으로 우리도 산 소망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신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Well, you say, "Don't I have anything to do?" Yea, through faith just believe it, that's all He requires. For you to believe that work that He has done for you. And so, we sought to follow the New Testament pattern, declaring the glorious works of God in our behalf.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물으시겠지요.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것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할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본을 받아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것입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these heavenlies in Christ Jesus. Starting off now,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According as he hath chosen us in him (1:4)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4)

God chose me. That thrills me. It used to scare me. I used to argue against that. That isn't fair that God should choose. I didn't like the doctrine of divine election. I don't know why I didn't, inasmuch as He elected me. But somehow my rational mind was wrestling with that. I am glad that God gave me the choice.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놀라게 하곤 했으며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택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 합리적인 마음이 그것과 씨름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택권을 주셔서 기쁩니다.

I appreciate this capacity of choice. I recognize the awesome responsibility that goes with it. But I am glad that God gave me the opportunity to choose the one that I was going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I would have just hated to have someone dumped on me. I appreciate that choice. But I would deny God that same right. God, You don't have a right to choose who You want to spend eternity with.

나는 이 선택할수 있는 능력을 감사합니다. 그 선택권에 따르는 놀라운 책임감이 따른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은 인생을 보낼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도 기쁩니다. 나는 누가 억지로 떠맡겼다면 그것을 싫어했을것이지만 선택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같은 군리로 하나님을 부인할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영생을 같이 보낼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According as He has chosen us.” It is interesting that Paul has that at the top of his list. And I think that it is appropriate. The top of our list should be the fact that God chose us. What a blessing, what a glorious blessing that God should choose me to spend eternity with Him. Now the amazing thing is, when God chose me, and this gives us a little clue in the whole thing,

“그가 우리를 택하사.” 바울은 그것을 목록 맨 위에 올려놓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또 그것이 적합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목록의 제일 위에 있어야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그와 같이 보낼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 안에서 작은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chosen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1:4),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4)

Now God didn't choose me after I decided to clean up my act and live for Him. God didn't say, "Oh, all right, I will chose him." God chose me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Now, that gives you the key into God's choices.

하나님은 내 행실을 정결케 하여 그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 좋다, 내가 그를 선택하리라” 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들어오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Having chosen m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ndicates that He chose me according to His foreknowledge. Because God knows all things, He will never learn anything new.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의 예지로 나를 선택하셨다는것을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새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If He can learn anything new, then He doesn't know all things. James said, "Known unto Him are all things from the beginning." So it is according to His foreknowledge, because He knew in advance. He chose me on the basis of His foreknowledge.

만약 그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울수 있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벌써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예지에 따른것 입니다. 그는 그의 예지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Now, this is where we have difficulty with the concept of the foreknowledge of God and predestination, and election, and chosen in Him. We have problems because we can't think with that capacity, or with that advantage. It must be...I don't even know if you have to think when you have that advantage. You know everything. And on the basis of what God knew, from the beginning He made His choices.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선택,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은것에 대한 개념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 수용력이나 이점에 대하여 생각할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틀림은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때 여러분이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시는것을 기반으로해서 그의 선택을 하신것입니다.

Now imagine if you had that kind of capacity that you knew everything in advance before it ever happened. You knew exactly how it was going to turn out. You could sure go back and improve your lot, couldn't you?

만약 당신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이 가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되돌아가서 당신의 운명을 개선하지 않겠습니까?

I have made some choices in my life that I was sorry that I made afterwards. I have made some poor decisions in my life. I sold too quickly. I bought at the wrong time.

나는 내 인생에서 나중에 후회하게 된 몇 가지 선택을 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몇 가지 잘못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팔았고 제 때가 아닌 때에 샀습니다.

Oh, if I only had foreknowledge when I made my decisions I wouldn't have chosen the losers. That would be sort of stupid to choose losers, wouldn't it? If you knew in advance. If you knew who was going to win the ball game.

내가 결정을 내릴 때에 나에게 예지가 있었다면 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자를 선택하는 멍청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볼 게임에서 이길것인가를 미리 알았더라면 패자를 선택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Or better yet, you could go to the racetracks with this kind of knowledge. Imagine what you could do, having foreknowledge, knowing every horse what he was going to do in that race, and you would go to the racetrack with this kind of knowledge.

더 나은것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경마장에 갈수있다는것입니다. 말들이 각각 경기에서 어떻게 할것을 아는 예지를 가지고 당신이 경마장에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경마장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Now, if you could, do you think you would go there and pick out a ticket of losers? I don't know what you do at racetracks. Would you pick out a bunch of losers? You would be stupid if you did. Of course, you wouldn't.

그렇다면 당신은 가서 패자의 표를 사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패자의 표를 많이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멍청이가 되며 물론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You would pick the winners, because you know in advance who is going to win the race. What the outcome is going to be. And so you make your choices

predicated on what the outcome is, because you already know in advance what it is going to be. That is just using your head.

경기에서 누가 이길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승자를 선택하겠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단정해 선택합니다. 그런 것이 당신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Now that is what thrills me about God choosing me. Because He don't choose no losers. God has only chosen winners. And by virtue of the fact that I have been chosen, that ensures that I am going to win.

하나님이 패자들은 택하시지 않고 승자들만 선택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전율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나는 선택된 덕분에 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Chosen in Him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I derive tremendous comfort from that. You may say, "Well, that isn't fair that God can choose, because if He chooses who is going to be saved, then He has also chosen who is going to be lost." It doesn't say that, does it? You are adding to the scripture. Well, that is a natural assumption. Not necessarily.

창세전부터 그 안에 선택된 나는 그 사실로부터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구원 받을 자, 구원 받지 못할 자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도 하겠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말씀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추측이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The fact that God foreknows those that are going to be saved and chooses them does not preclude any man from coming, because the scripture says, "Whosoever will, may come and drink of the water of life freely" (Revelation 22:17).

하나님이 구원 받을자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다는 사실이 아무나 오지 못하게 막는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오라,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로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17).

And not one person has ever come to God and been turned back by God. God says, "Well, let Me see. I'm sorry, your name is not on the list. Too bad, you seem like a very nice fellow. I would like to save you, but there was a slip up in the records someplace. I guess you just can't make it."

하나님께 온 자를 하나님이 한 사람도 돌려 보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자. 미안하지만 너의 이름은 책에 없어. 안됐다. 너는 좋은 사람 같은데. 내가 당신을 구원하고 싶지만, 목록 어디엔가 실수가 있는거 같아. 너는 안되겠어"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Predestination, divine election never precludes any man. You say, "But I don't think that I like that God can make these choices. Because, what if He didn't choose me?"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그 누구 하나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Well, how do you know He didn't choose you? "Well, I am not a Christian." Well, why aren't you a Christian? "Well, I don't want to be." Well then, maybe He didn't choose you and sort of sad.

그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그리스도 인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 인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나 봅니다. 슬픈 일입니다.

But you can find out whether or not He chose you by just accepting Jesus Christ. And you will discover He chose you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You see, if there is any question in it, you can answer the question tonight. You can just say, "Lord, come into my life. I am going to be a Christian. I am going to follow Jesus Christ."

그가 당신을 선택하셨는지 아닌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창세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어떤 질문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당장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나는 그리스도 인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초청할 수 있습니다.

And you will discover the minute that you do, that God chose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He says, "I've been waiting for this. Great to have you on board; come on in." And then He'll show you, "I chose you, here you are. I knew exactly the time, and the whole situation. Here it is, you were chos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한다. 어서 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여기 있구나. 정확한 시간과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다는 것이 여기 있어."

"Yea, but what if I don't want to come?" Well then again I say, it's tough, but you can't blame God. Because God has opened the door to you. And God has

given you the opportunity, and God has called you to come. So though God has chosen those, still He has left the door open so that it becomes your choice also.

‘예, 그렇지만, 내가 오기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안됐지만, 하나님을 원망할순 없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셔서 당신에게 오도록 부르셨으니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아직도 문을 열어 놓고 그것이 또한 당신의 선택이 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Though God already knows the choice you are going to make. But you are the one that makes the choice, but God in all of His wisdom knows the choices each person is going to make. But He doesn't make the choice for you. He only knows in advance that which you are going to choose.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택할 선택도 알고 계시지만 선택은 당신의 것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선택할것을 그의 모든 지혜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선택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We were chos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여졌고,

that w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in love

(1:4):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4)

Oh God, help me...we have got two chapters to go and I am just plotting. But every verse just opens up such a new, rich dimension. It is hard to just pass over it.

오 하나님, 도와 주소서...두장을 더 공부해야하는데, 계획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절절마다 새롭고 부요한 차원을 열어줍니다. 그냥 지나치기는 힘이 듭니다.

What has God chosen for you? That you should stand before Him holy and without blame. In Jude we read, “Now un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and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Jude 24). One of these days my name is going to be called, and I am going to stand out, and God is going to look at me, and Jesus is going to step up and say, "Father, one of mine." In Christ, holy, without blame. “He is innocent Father. He is without blame. He is faultless.”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당신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는것입니다. 유다서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에게” (유다서 24). 언젠가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나가서 설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서서 “아버지, 내것중의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는 순수한 아버지이시며 나무랄데 없고 흠이 없으십니다.”

He is going to present me faultless. How? Because He is going to present me in Him. It is in Christ that I have this standing before God of faultless, without blame, holy. That isn't me, that isn't my works, that isn't my efforts; that is the way God is going to receive me in Christ Jesus.

그가 나를 흠이 없이 바칠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안에 있는 나를 드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서는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며 내 노력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That is the way Jesus is going to present me to the Father, for He has taken all of my blame. He has taken all of my sin, and He has paid the price and the penalty, and He is going to present me in His righteousness. For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Him.

예수께서 나의 모든 흠을 없게하셨으므로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에게 바치는 방법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셨고 값을 치루셨으며 이제 나를 그의 의로 나를 감싸서 드릴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Having predestinated us (1:5),

God's predestined plan for our lives.

that we should be adopted as His children (1:5),

우리를 예정하사 (1:5)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5)

Now, as we were going through Romans, we pointed out the fact that we have been adopted as the sons of God. Jesus i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but God has predestined that we should become the adopted children by Christ Jesus.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의 양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1:5),
그의 기쁘신 뜻으로 (1:5)

Now, this is a phrase you are going to find repeated, and it is an important phrase to understand.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그의 기쁘신 뜻”이라는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In Revelation 4:11 the elders declare to God, "Thou art worthy to receive glory and honor: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and for Your good pleasure they are and were created."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God has chosen you.

요한 계시록 4장 11절에서 장로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기쁘신)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God has predestined you to be His children that He might receive pleasure from your willful obedience to His will. That you might be faithful, obedient children in which the Father can take pride.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그의 뜻에 기뻐 순종하는 그 기쁨을 받으시려고 당신을 그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You remember when Job was there accusing before God, the saints. Remember in the book of Job? The sons of God were presenting themselves to God. Satan also came with them and said, "Hey, where have you been, man? I have been cruising around the world." "Oh, hey did you notice that one fellow Job? Good man, isn't he? Perfect, upright, he loves good, and hates evil.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했을 때 그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너희들은 어디 갔다 왔니? 나는 세상을 두루 다녔지.” “오, 욥이라는 친구를 주목해 보았느냐? 그는 좋은 사람이니? 완전하고 정직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Yea, I have noticed that guy, but You put a hedge around him. I can't get close to him. And you have so blessed that guy, he is so wealthy. Who wouldn't serve You if You give them all of that kind of stuff? Anybody would serve You. He doesn't really love You; he just loves the perks he is receiving. You let me at that guy and I can make him curse You to Your face.”

나도 그를 주목해 봤지만 그에게 울타리를 치셨으니 내가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나이다.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부하게 해주시니 누군들 모든 것을 주는 자를 받들지 않겠나이까? 그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받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그가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을 저주하게 할수 있습니다.

God said, "Well, have a go at it, but don't touch his life." And then Job went through the stripping process, family, possessions, friends. And it came another time when the sons of God were presenting themselves before God, Satan also came with them, and God said, "Where have you been?" And Satan said, "Going up and down the earth, to and fro through it." "Well, have you seen my servant Job?" After Satan has stripped him of everything, he lay on the ground naked, destitute, and he said, "Naked I came into the world, naked I am going out. The Lord gives, the Lord takes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나 다른것들은 네 손에 붙이노라” 고 하셨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과 친구들을 잃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사단도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묻자 사단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사단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후에, 그는 벌거 벗고 빈곤한 채로 땅에 누워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And in all of these things he didn't curse God, or charge God foolishly. Now God is rubbing it in, “Have you noticed my servant Job? The man loves good; hates evil. My boy.” God was proud, taking pleasure, and that is what God desires to do in your life--to take pleasure for your love and your obedience to Him.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것입니다 ---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를 순종함으로 기쁨을 가지시는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그의 뜻의 참 기쁨에 의하면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1:6),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1:6)

That God might receive praise and glory because of His grace.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는것입니다.

wherein he hath made us (1:6)

And the next blessing:

accepted in the beloved (1:6):

이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1:6)

그 다음 축복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1:6)

God has accepted me in Christ. Now, I have no acceptance before God in myself. I can't go up and say, "Hey, God. I am Chuck Smith, here is my card. I want in. I want you to accept me, God, because I really tried." I have no acceptance in myself. I am only accepted in Christ, accepted in the beloved.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받아 드려질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여보세요, 하나님, 나는 척 스미스이고 내 명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나를 받아주세요.” 내 자신으로선 받아드려 질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 받는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드려집니다.

When I stand before God, I will stand before Him in Christ, and as such, will be accepted in the beloved.

내가 하나님 앞에 설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앞에 서게 되고, 사랑 받는자 안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1:7),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1:7)

So the next blessing. In whom, in Christ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다음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입니다.

the forgiveness of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1:7);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으니 (1:7)

I almost spoke on this subject this morning. I am just going to bypass the temptation to speak on it tonight.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idea of redemption is that of purchasing something back.

나는 오늘 아침 이 주제로 설교할 뻔 했지만 오늘 저녁에 하려고 꼭 참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속되었다는 구속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도로 샀다는 뜻입니다.

The idea here is to purchase a slave off the market who cannot pay his debts. He has been sold into slavery, because of his inability to pay his debts. And someone now has come along and paid his debt for him, has redeemed him.

여기서 말하는것은 빚을 갚을수 없는 노예를 시장에서 산다는 개념입니다.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의 빚을 갚고 그를 구속한 것입니다.

I owed a debt I could not pay. I was sold into the slavery of sin. But Jesus paid the debt that I owed. He redeemed me from the slavery to the life of the flesh that I might become a child of God, forgiven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Oh, how glorious, the forgiveness of my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나는 갚을 수 없을 빚을 졌습니다. 나는 죄의 노예로 팔렸으나 예수께서 나의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적인 삶에 얽매인 노예생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Wherein he has abounded [that is, His grace has abounded] toward us in all wisdom and prudence; having made known un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himself (1:8-9):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심을 따라 (1:8-9);

Again, the good pleasure of God, the purposes of God. And in this He has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What is it? That Christ in you is your hope of glory.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That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he time (1:10)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1:9)

That is, when the whole cycle is complete and the history of man has concluded,

다시 말하면, 전체 주기가 끝날 때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that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earth; even in him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이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0)

God's intention of bringing the whole universe together again into obedience and in subjection to Jesus Christ.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re was only one government in the universe.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는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나라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It was the government of God, the government of light and life, and every creature within the universe that was created by God was in harmony with God, in subjection to God, and it was a beautiful, glorious universe of light and life.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빛과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과 생명의 우주였습니다.

But one day, one of God's glorious creatures that was perfect in beauty and perfect in wisdom and perfect in all of his ways,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be equal with God. He was going to exalt himself above the other angels.

그러나 어느날 하나님의 완벽하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혜롭고, 그의 모든일에 완벽한 영광스러운 창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 위에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And was going to be as God. And with that rebellion against the will of God there came a second government in the universe. Satan as its head, the government of death and darkness. A government that is in antagonism to the first government, in rebellion against the first government, and thus, the beginning of this struggle within the universe of the good against the evil.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여 우주 안에 제 2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사단은 죽음과 어둠의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첫 나라에 적개심을 품고 반항함으로써 우주 안에 있는 선과 악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And we have come into time, born on this planet Earth, which happens to be sort of the center of the conflict. And we are born into a spiritual conflict, and even within us we experience the conflict of the good that I would, I often do not do, and that which I would not do, I find myself doing. And I find myself in this conflict of good and evil.

우리는 투쟁의 중심지인 이 지구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행하여야 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지않아야 할 악을 행하는 내적 투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러한 선과 악의 투쟁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And I look around at this weary world, and I see it in this conflict, and I see the tragic byproducts of the conflict. I see the suffering. I see the wars. I see the struggles. All resulting because of the initial rebellion against God.

나는 이 피곤하게 하는 이 세상을 둘러볼때 세상이 투쟁속에 있고 그 투쟁의 비극적인 부산물이 있습니다. 고통과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And man caught up in that rebellion. And not living as God would have him to live upon the world. For as we sang "Love, love, this is your c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is is God's command, God's call to us. But men aren't living by that standard, and thus, the conflict. And thus, the miseries of the world around us. It could all be solved if we would just start living as God asks us to live.

인간은 그 반항심에 사로 잡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 사랑, 이것은 당신의 부르심,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라" 고 노래 하는것 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규칙대로 살지 않아 혼란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은 해결될것입니다.

But one day, thank God, one day Satan is to be cast into Gehenna, and all of those that have chosen to rebel with him, they will be cast into outer darkness, beyond the farthest galaxy, out into the abysmal darkness beyond the light of any of the universe. Loving darkness rather than light, God accommodates them into the eternal darkness forever.

And within this universe of God, once more there will be just one government. And God will gather together in the fullness of times all things into Christ, and all now in subject to His authority, living in a world, in a universe of peace and glory. All in harmony now with Him, all in sync with Him once more. What a glorious universe that is going to be.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느 날 사탄은 계해나에 던져질 것이며 그와 함께 반역했던 모두가 바깥 어두운곳,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계를 지나 우주의 빛이 비취지 않는 끝없는 어둠 속에 던져질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영원한 어둠 속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주속에 다시 한번 더 오직 한 나라만이 존재하게 될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만물을 그리스도안으로 모으실것이며 모든것이 그의 권세에 복종하여 영광과 영광의 우주안에 있는 이 세상에 살게 하실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다시 한번 그와 하나가 될것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세계가 될것입니다.

You know, this world wouldn't be a bad place if it weren't for sin. I have seen some really beautiful places. If it weren't for man's corrupting of this planet, it has really some gloriously, beautiful places to see.

세상에 죄만 없다면 이 세상은 그리 나쁜 곳은 아닙니다. 나도 아주 아름다운 곳들을 봤습니다. 이 지구에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보고싶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I have been skin-diving in some fabulously, beautiful places. Just enchanted by the corals, by the various fish and all, and then I see some beer can, and I think, "What a tragedy out here in the Pacific. Some inconsiderate person just polluting, trashing." Man has the capacity of trashing everything, it seems. How glorious to live in a world that will all be in subjection to Jesus Christ. When the fullness of time, the cycle is complete, and God brings it all back together in one in Christ.

난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에서 스킨 다이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호들과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로 매혹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맥주 병이 보이자 나는 생각하기를 "태평양에 맥주 병이라니 슬픈 일이다. 어떤 몰지각한 인간이 저렇게 쓰레기를 버려 공해를 일으킨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쓰레기로 만들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세계에 살게될테니 얼마나 영광 스럽겠습니까. 때가 차면, 즉 주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든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것입니다.

"Even in Him:"

In whom also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1:11),
그 안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셨으니 (1:11)

Incorruptible, undefiled, fades not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If we are children of God, then we are heirs of God and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And it is through Jesus Christ that I have become an heir to the glorious, eternal kingdom of God and to the riches of that kingdom. They are mine, and I shall enjoy them, world without end.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당신을 위해 천국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의 후사가 되었고 그 나라의 재산에 대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내 것이고 끝없이 즐길수 있는 세상입니다.

“In whom also we have this glorious inheritance,”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었으니,

being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m who works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own will (1:11):

모든 일이 그 마음의 원래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1:11)

God doesn't have to ask counselor advice of anybody. He does it all according to His own will. His purposes which He has purposed, they shall come to pass. They shall stand. God's purposes cannot be defeated.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상담할 필요가 없고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의 예정에 따라 결정하십니다. 그의 예정은 확고하며 실패할수가 없습니다.

That which God has purposed shall be. Thank God He has purposed that I should share with Him in that glorious kingdom. Oh thank God for His purposes. The eternal purposes of God which He has purposed in Himself after the counsel of His own will.

하나님의 예정대로 될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갖도록 그가 예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그의 목적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들은 그의 뜻에 따라 주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들입니다.

That we should be to the praise of his glory, because of our trust in Jesus Christ (1: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2)

When you trust in His Son Jesus, God just says, "Oh, look at them, look at the trust they have." Now, many times this trust is tested.

Am I going to trust in Jesus when things go bad? Do I only trust in Him when things are rosy and things are going great? I say, "Oh, man, life is sweet. Life is wonderful. Lord, I trust You for everything."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때 하나님께서 "오, 저들을 보라, 그들이 가진 믿음을 보라" 고 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시험이 자주 있을것입니다.

일이 잘 안될 때도 예수를 믿을것인가? 모든것이 평화롭고 일이 잘 되어갈때만 그를 믿을 것인가? 나는 말합니다, "오, 인생은 아름다워라. 주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모든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But do I trust Him when it gets tough? Do I trust Him only when I can understand what He is doing? Can I trust Him when I don't understand? Now, many times God places me in situations that I don't understand to see if my trust is really genuine.

그러나 일이 어렵게 될 때도 내가 그분을 믿는가? 그가 하시는 일을 이해할때만 그분을 신뢰하는가? 알수 없을 때도 그분을 신뢰할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정말 순수한 것인지 보시려고 내가 이해할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하시는때도 많이 있습니다.

And as I trust in Him in those dark places, in the places of suffering, in the places of questions, when I trust Him in those places, actually, it brings greater praise to His grace than when I only trust Him in the good times. My trust in Jesus.

내가 어둠에 있을 때나 고통 받을 때나 의심스러울 때 그분을 믿는것 처럼 그러할때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모든일이 잘되어갈때 그분을 미는것보다 그의 은혜를 더 크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입니다.

In whom you also trusted, after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in whom also, after that you believed, you were sealed with the Holy Spirit of promise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하심을 받았으니 (1:13)

Now, Ephesus was a major seaport in which the goods were coming from the eastern part of the world. And the merchants from Rome would go to Ephesus to the large markets, the wholesale markets, and they would purchase these goods coming from the east. And then they would crate them, and then they would put their seal on the crate.

에베소는 동방세계에서 오는 물건들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상인들이 큰 시장에 가서 물건을 도매값으로 사고 또 동방의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로마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상품을 상자에 포장하고 그 포장한 상자위에 인장을 찍습니다.

The wax. And each one had their ring, their signet ring, and they would press their ring into the wax. It was the sealing of the merchandise. They would put it on the ships, and then the ships would sail to Puteoli, which was the port for Rome in those days.

And when the merchandise would arrive in Puteoli, the merchants' servants that were there would go through the goods as they were unloading them and say, "There, there." And they would pick out their merchandise that was sealed with their master's seal. It was the sign of ownership; that is mine, that belongs to me, that is mine, it has my seal. It was the sign of ownership.

포장한 상자위에 밀랍(왁스) 을 바릅니다. 사람마다 그들의 인장이 있고, 인장을 밀랍에 눌러 찍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물건에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배에 싣고, 그 때의 로마 항구였던 푸테올리 항구로 보냅니다. 도착하자 상인들의 종들이 물건을 내리면서 확인을 할때 "저기, 저기"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의 도장이 찍힌 상품을 골라냅니다. 인장은 주인의 표시이며 그것은 내것, 나에게 속한 것, 내 인장이 찍힌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표시입니다.

God has purchased you. After you believed in Jesus, after you have trusted Him. And He went one step further, He put on me His seal of ownership. I'll tell you, that makes you feel secure. That God has sealed me.

I am His; I belong to God. I have got the seal of God upon my life, His Holy Spirit which He has given to me is God's seal of ownership.

In whom we have been sealed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

당신이 예수를 믿은후, 그분을 신뢰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그의 소유물로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당신을 안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에게 속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인치셨고 하나님이 소유의 보증으로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Which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1:14),*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1:14)

Or, it is the down payment.
이것이 보증금입니다.

I put an ad in the paper. I am going to sell my car, and you come along and say, "I like that car. I want to buy it. I have to go to the bank and get the money." And I say, "Do you really want to buy it?" "Yes, I want to buy it, but I have to go to the bank and get the money." "Well, then give me a deposit." "Oh no, no, I will buy it. Just take my word for it."

내가 차를 팔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차 좋네요. 사고 싶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 차를 사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사겠습니다만 은행에 돈을 가지러 가야 합니다." "그럼, 난 예치금을 주세요." "아닙니다, 아니, 꼭 사겠습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No, no. I want a deposit, because someone might come along in five minutes and offer me cash and have the cash on hand, and I don't want to be holding the car for you, because you may change your mind on the way to the bank, or the bank may not give you the money, you see. And here I might turn away a valid buyer, trying to hold the thing for you. So I want a deposit. If you want me to hold this car for you, I want a deposit. You give me the deposit and the car is yours."

"아닙니다,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5분 후에 어떤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와서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면당신을 위해 이 차를 붙들어 둘수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당신이 은행에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돈을 안 내줄 수도 있고 당신에게 차를 팔려다가 살만한 사람을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이 차를 보관하기를 원하면 예치금을 주십시오. 당신이 예치금을 주면 이 차는 당신의 것이 될것입니다."

The deposit is what they call earnest money, which means I am really earnest to buy it. I am earnest in my intent to buy your car, or you are showing that you're earnest in your intent to buy my car, as this case happened to turn

out. The deposit--it indicates that you are intending to go ahead and complete the purchase.

예치금은 당신이 꼭 사겠다는 보증금입니다. 즉 내가 당신의 차를 꼭 사겠다는 보증 또는 당신이 내 차를 꼭 사겠다는 뜻을 보여 주는것입니다. 예치금은 먼저 당신이 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후에 마무리 짓겠다는 표시입니다.

Now, God has placed His deposit on me. He has purchased me. I have been redeemed through Jesus Christ. He has sealed me, put His mark of ownership upon me, and He has paid the down payment, the deposit, until that day when He takes me into His glorious kingdom and the redemption is complete. You see, this body is not yet redeemed.

하나님은 나에게 예치금을 지불하고 나를 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되었습니다. 나를 그의 소유물이라 표시하셨고 예치금을 내셨으며 구속이 완성되어 그가 나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인치셨습니다. 보세요. 이 육체는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디다.

I have a redeemed spirit living in a corrupted body. This body is decaying; it is going to pieces, but I have a redeemed spirit, and I am waiting for the redemption of the body. That is, the new body that I have, the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and therein, when I enter into that new body and am in the presence of the Lord, my redemption at that point will be complete. So in the meantime, that God might show to you that He is earnest and sincere about His purpose in redeeming you, He gives to you the deposit, the down payment of the Holy Spirit, which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나의 구원 받은 영이 타락된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쇠퇴하고 부서지겠지만 내 영은 구원받았으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 새 몸을 입고 주님앞에 설때 그 시점에서 나의 구속은 완성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속하실 그의 예정에 대하여 간절하고 진실하심을 당신에게 보여 주시며 구입하신 소유의 구속이 이루어 질때까지의 보증인 성령을 당신에게 예치금 으로 주십니다.

unto the praise of his glory (1:14).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1:14)

One day God is going to complete this transaction of my salvation, when I am there with Him in His glorious kingdom.

그 언젠가 내가 그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그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속의 절차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Wherefore I also, after I heard of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 unto all the saints, cease not to give thanks for you, making mention of you in my prayers (1:15-16);

이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15-16)

This is the first of the two prayers that Paul has prayed for the Ephesians. And the one thing that I like about Paul's prayers is the directness of his prayers. And the thing that I think is a weakness in prayer, many times, is the lack of directness in prayer.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교인들을 위한 두 가지 기도 중 첫번째 것입니다. 나는 바울의 기도를 좋아하는 것중의 하나는 그의 기도가 아주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는 솔직하지 않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so often we are praying for things that are actually symptoms rather than getting to the heart of the matter. Here is John; he is having a terrible drinking problem. He has become an alcoholic. "Oh God, help John not to drink anymore. It is destroying his life. He is going down the tubes. He is drinking. God, help him not to drink anymore."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때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증세에 대하여서만 기도합니다. 여기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지독한 알코올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알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존이 술을 끊게 도와 주세요. 술이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인생이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마십니다. 하나님, 그를 도와 주셔서 술을 끊게 해주세요."

So John becomes a sober sinner, rather than a drunk sinner. What does he gain outside of sobriety? His real need is salvation. But you see, we are praying for the symptoms.

If you went to a doctor who only treated your symptoms, he would be a quack. "Doctor, I have this dizziness and these reoccurring headaches. The pressure seems to build up." "Well, here, take some aspirin." Two months later, "Doctor, the aspirin just isn't doing it. The pressure seems to be greater and I am having these dizzy spells and I am blacking out."

존은 술 취한 죄인이 아니라 술 취하지 않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존이 술을 끊은 것 외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이지만 우리는 증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상만 치료하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지럽고 계속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긴장이 쌓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스피린을 드세요.” 이 개월 후, “선생님, 아스피린으로는 듣지 않는데요. 긴장이 더 해지나 봅니다. 현기증도 있고 기억도 없어요.”

“Well, I will give you some Demerol. You need something more powerful.” And if he only went ahead treating the symptoms while you have a tumor developing in the brain and creating pressure, he is a quack. “그래요, 내가 데메롤을 드릴게요. 그건 좀더 강합니다.” 만일 뇌 안에서 종양이 생겨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의사는 증상만 치료한다면 그는 돌팔이 의사입니다.

But so often, as we are praying in situations, we are praying only for the symptoms. We are not getting at the heart. I think it is important in prayer to come directly to the real heart, because as we pray for symptoms, we're so often are just praying that God will correct the symptom, without really getting at the cause.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 기도하듯 빈번히 증상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인은 손도 안대고 증상만을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서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ike this fellow that at the Saturday night testimony meeting was talking about how he became entangled in the web of sin this week. “And oh, I was determined to live for Jesus, but sin began to weave its web and I got all tangled in the web of sin and I fell again. Oh, I come tonight and repent.”

토요일 저녁 간증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이번 주 자기가 죄악의 거미줄에 말려들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한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는데 죄는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고 나는 죄의 거미줄에 휘말려들어 다시 타락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And every Saturday night say his testimony, caught in this web, and it entangled me and I fell again and all. And so finally, one time the guy was giving his testimony, and another fellow sitting by him, said, "Oh God, kill the spider." That is getting to the heart of the issue.

매 토요일 저녁 그는 죄에 말려 다시 죄를 지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느날 그가 간증하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오 하나님, 그 거미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We deal so often in just the peripheral issues rather than coming to the heart of the problem. Paul in his prayers comes to the heart of the issue. And that is why I love Paul's prayers. What is he praying for them? First of all,

우리는 가끔 문제의 원인을 찾기 보다는 문제의 주변만 다룹니다. 바울은 문제의 중심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unto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17)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any of us can possess is the true knowledge of God. There are so much false concepts concerning God. You cannot know God by searching. That is what the friend of Eliphaz said to Job.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중의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서 알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Who by searching can find out God?” You can't. God has revealed Himself, and it is only by revelation that you can really know God, and it is only as the Spirit opens your heart to the revelation that you can really understand God. You cannot in your intellectual quest come to an understanding of God.

“누가 수색하여 하나님을 찾아 낼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시고, 오직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계시에 당신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 탐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It takes a revelation by the Spirit of God.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e Spirit draws him. No man can even understand the Father, the natural

man canno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God is a Spirit,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truth. That is an impossibility for the natural man.

하나님의 영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이해조차 할 수 없나니 자연인은 신령한일을 이해도 못하고 알수도 없으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것으로만 분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그것이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합니다.

It takes the Spirit working in my heart, the Spirit of revelation in the wisdom and in the knowledge, the understanding of God. And Paul is praying that God might reveal Himself to them by the Holy Spirit. That is the only help and the only hope that I have of ever knowing God, is through revelation of the Spirit.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성령으로 그들에게 계시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수있는 유일한 도움이요 소망이며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That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once I have come to understand God] being enlightened; that then I might know what is the hope of his calling (1: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18)

Remember the first thing that Paul was excited about, he was chosen in Him. Oh, if you only knew what the hope is for those that God has called to be His children, you would never, never, never have a problem with death again. You would never have a fear of death. You would never grieve for a child of God who died, if you only knew what is the hope of our calling.

바울이 감격했던 첫번째 사실은 그가 주안에서 선택 받았다는것이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하신 소망을 알았다라면, 당신은 결코 죽음의 문제를 다시 가지지 않을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면 죽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have such peculiar concepts of death. "Oh, what a shame, he was so young. He had everything going for him, his whole life in front of him. What a tragedy his life was snuffed out so early." That is because you don't know the whole calling of the believer.

우리는 죽음에 묘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거 안됐군, 그 사람 아직 젊은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장래가 창창한데 그렇게 일찍 떠나다니 참 비극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Tragedy for us maybe, because we are going to miss him, but not a tragedy for him. He is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He doesn't have to go through all of the hell and suffering on this earth. Your life on this earth is all of the hell you are ever going to know. For those that aren't saved, their life on this earth is all of the heaven they're ever going to know.

그를 그리워할 우리들에게는 비극이겠지만 그에게는 비극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갖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알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것은 지옥입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더 할데없는 천국입니다.

If you only knew what was the hope of your calling, If you only knew what God has in store for His children. If you only knew the glory that awaits us as children of God. You see, it would correct the false attitude that we have towards the world and the things of the world.

Now, rather than Paul saying, "Oh God, they are getting so embroiled in the world with things, help them to begin to have a distaste and all for those things and all." No, he just prays at the heart of the issue.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것을 예비해 두셨는지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알고만 있다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르게 할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매혹되어 있으니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보다는 그는 문제의 중심에서 기도했습니다.

They don't know what God is preparing for them; they are discouraged because they have lost sight of the glory that God is going to reveal in them. And so he gets right to the heart of the issue, “God, enlighten them as to the hope of their calling. Let them know God, what You have got in store for them. They won't become discouraged anymore, Lord. They only know the glorious things that await them when they get to the end of the road.”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실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곧바로 문제의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들은 모든것이 끝난 후에야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Alexander the Great was going over the Himalayas as he was moving to conquer India, having conquered the Persian Empire and all of its wealth. And he saw this one young fellow whose horse was heavy laden, and the horse was weakening under the load and beginning to sort of stumble along. And he was doing his best to help the horse, and finally the horse just collapsed.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과 그들의 부를 정복한 후에 인도를 치려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의 말에 무거운 짐이 지어진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거운 짐으로 인해 약해졌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말을 도우려고 했으나 결국 말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And so this young boy took the load that was on the horse and put it on his shoulders, and he began to strain and struggle with that load. Alexander the Great became curious, what in the world does he have in those sacks that he is trying so hard to carry them on. Why doesn't he just leave them along the path?

그러자 그 젊은 청년은 말에 실었던 짐을 자기의 양 어깨에 메고 힘을 다하여 애쓰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애써서 옮길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그것을 길에 버려 두지 않는가?

And he went up to him and he said, "Young man, what in the world do you have in those sacks that you are trying so hard to get to camp with them?" And he looked at him and he said, "Sir, I bear in these sacks the treasures of Alexander the Great." Alexander shook his head and said, "When we make camp, take them to your tent, they now belong to you." Don't you know, they got a lot lighter. All of a sudden it wasn't nearly as heavy, "Great, now it's mine, wow."

그래서 그는 저에게로 다가가서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그렇게 힘들게 캠프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부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를 바라보며 “각하, 제가 운반하고 있는 부대속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가 야영을 하게 되거든 그것들을 자네의 천막에 가져가게. 그것들이 이젠 자네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훨씬 가벼워 진것을 모르세요? 갑자기 그것들은 그렇게 무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그건 내꺼야.”

The Lord says, "When we make camp it is all yours." The hope of your calling, the glorious, eternal riches of God's kingdom. When I realize what God has waiting for me. I tell you, it gives me the strength, the energy, the courage, all that I need to go on. If you only knew the hope of your calling. If you knew,

“우리가 천막을 칠때 그건 다 네꺼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다리시는것을 깨달을때 그것은 내가 계속 전진하는데 필요한 힘과 정력과 용기와 모든것을 줍니다. 만일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다더라면, 당신이 아셨더라면,

what were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1:18),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18)

Now this is interesting. Watch out now. He is not talking about your inheritance here. He is talking about His inheritance, and this to me is a mystery.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는 당신의 이 땅에서의 기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며 이것이 나에게서는 신비한 것입니다.

If you only knew how much God treasured you. I have never thought much of that. I have thought a lot about my treasures in God. But God treasures me? Do you remember Jesus said,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n unto a man going through a field and discovering a treasure." (Matthew 13:44).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배로 삼으신것을 알았다더라면.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 만큼은 생각하지 않았습디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보배에 대하여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삼으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것을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13:14).

Now when you attribute that parable, the treasure turns out to be you. And the person who gave everything to buy the field, the world, in order to obtain the treasure is Jesus. He values you so highly that He gave His life to redeem you, to purchase you. You are His treasure.

당신이 그 비유를 돌려보면, 보물은 당신이 됩니다. 보물을 얻으려고 세상인 밭을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서 구속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실 만큼 당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보물입니다.

Peter said, "We are His peculiar treasure," God's treasure. If you only knew how much God treasured you, you would never treat yourself cheaply again. You would never look down at yourself again.

빠드로는 “우리는 그의 특별한 보배” 곧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셨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을 천하게 다루지는 않을것입니다. 다시는 당신 자신을 경멸하지 않을것입니다.

“Hey, I am God's treasure. I am God's inheritance. God values me. God treasures me, glory.” Personally, I don't think He is getting much of a deal, but I like it that He likes it.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And then if you only knew the tremendous power that God has made available to you, in your life.

“여보게,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와 영광으로 삼으셨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에게 이익이 없는 장사겠지만 그가 좋아하시니 기쁩니다. 그것이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당신이 알기만 한다면 좋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What is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to us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 of that might power (1:19),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19)

If you only knew the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to you as a child of God. The resources of God are now yours. The strength of God, the peace of God. They all become yours, these glorious resources. “Oh God, help them to realize the resources they have if they will just call upon You.” That power that is available to them.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원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화, 이 영광스러운 자원이 모두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당신에게 구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가지게 되는 자원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똑 같은 능력이라는것을 알게 하옵소서.

Which he wrought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t him at his own right hand (1:20),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1:20)

That same power of the Spirit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the power of the Spirit that dwells in you and is going to make alive our mortal bodies, by His dwelling in us. If you only knew what the exceeding greatness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God. Power available. It has set Christ,

죽은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성령의 능력은 우리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같은것이며 우리 안에 그가 거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것인지를 알았다더라면 그 능력을 당신이 활용할수 있을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안에 있는것입니다.

in the heavenly places, far above all principality, and power, and might, and dominion (1:20-21),

하늘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하는 자와 (1:20-21)

These are rankings of the spirit beings in the universe. Christ is far above all of these spiritual beings, far above every principality and power and might and dominion.

이것들은 우주 안에는 영적 존재의 계급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영적 존재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자들 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and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world, but in the one to come (1:21):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1:21)

That place and position that God has given to Jesus Christ. As we come into Philippians, we will find that God has also highly exalted Him, given Him a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He has seated Him there in the heavenly places, far above, a name above every name that is named.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위치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And he has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1:22),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1:22)

The authority, the power that He has given to Jesus to reign.

and gave him to be the head over all [power that He has given to Jesus to reign. And He gave Him to be the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1:22),

하나님이 그를 만물 곧 교회에 속한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능력을 예수에게 주셨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22).

Christ, the head of the body of the church,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Christ,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Every month at our church board meeting we begin the meeting with an acknowledgement that Jesus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We are not there to conduct the business as we see fit, we are there to get the mind of the Lord, that He might direct the activities of the church. We are not there to govern the church, we are there to listen to Him, to find out what He wants done. And we seek His counsel and we seek His advice, for He is the head of all things to the church.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의 머리시며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
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곳에 가 있으면 주님께서 활동을 지시하실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치하려고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원하시는것을 찾아 내기위하여 거기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모든일의 머리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뜻을 구하고 그에게 충고를 구합니다.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that fills all in all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23)

I am not going to try chapter 2. I am just going to go home and have spiritual indigestion all week. I hope you do. I hope you burp in these scriptures all week long.

2장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영적 소화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이 구절들을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That God will just bring back to your heart and your mind what you are to Him, how valuable you are to Him, how important you are to Him, how much He loves you, how much He has made available to you, how much He has done for you, just because He loves you with such exceeding great love. And that you might just trust in Him, so completely and so fully that God will just take pleasure and glory in your trust in Him and receive praise and glory because of your total trust in His wisdom as you commit your life into His hands.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당신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마음에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면 당신의 그의지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과 당신의 삶을 그의 손에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I pray that this will be one of the richest weeks that you have ever had in your walk with Jesus Christ. That you will come to a new appreciation the Holy Spirit and His work within your life, that sealing you, God owns you. That awareness: I am His property.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풍성한 한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성령과 그의 역사하심과 당신을 인치시고 당신의 주인이심을 새로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소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I'm not my own to do with me what I want to do with me. I have been bought with the price; there has been a deposit paid, and I am waiting for Him to redeem that which He purchased. Oh how rich and blessed you are to be a child of God. Nothing in the world can compare with it, the riches of loving Christ Jesus, far greater than gold or wealth, those riches that are yours in Him.

나는 내 자신에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값을 주고 사신바 되었습니다. 나를 사신 분이 예치금을 치르셨고, 나는 그가 구속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일인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금보다, 재산보다 훨씬 좋은 그런 소유들이 그의 안에서 당신의 것입니다.

I feel like David when he said, "Lord, what shall I say to these things? I am speechless, God." How can I respond to God when I see all that God has done for me? How do you respond to something like this?

How do you say thank you for these kind of things? Just, "Thanks, God. Appreciate that." Sounds really too trite. How can I do less than give Him my best and live for Him completely after all He has done for me?

내 기분은 다윗이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들은 형용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던 것같이 하나님,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흔해 빠진 인사입니다. 나의 제일 좋은 것은 그에게 드리고 완전하게 그를 위해 살지만 결국은 그는 나를 위해 하십니다.

The natural response is just that total, "Here it is, Lord. Just take it. I give it to You." In the hope of the calling, riches of the eternal kingdom of God that are mine when You have completed Your redemptive process.

God bless you and anoint you with His Spirit and fill you with His love, crown you with His glory. In Jesus' name. Amen.

당연한 반응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받으세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당신이 당신의 구원의 과정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 왕국의 소유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으로 당신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랑을 당신에게 부어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